



인사동정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에
이성근 대우조선 사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

어 이 사장을 제 17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조선협회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등 8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이 회장은 1979년 대우조선공업 입사 이후 선박해양연구소장, 미래연구소장, 중앙연구소장, 기술총괄, 조선소장 등을 역임한 생산·기술분야 전문가다. 지난 3월29일 대우조선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한국 조선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기량 조선인력 부족,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철강업계와의 후판 가격 협상 등 제반 이슈에 대해 회원사들과 함께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71, 좌)이 4월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현지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공석이 된 그룹 회장 자리에는 장남 조원태(44, 우) 대한항공 사장이 24일 취임했다.

**해수부 문성혁 장관 취임
"해운재건 더욱 가속화, 해운업 국민 신뢰 되찾아야"**



제21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문 장관은 취임사에서 "40여년전, 한국해양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바다와 맺어진 인연이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였다"면서 "그동안 해운과 항만분야 등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범위가 매우 폭넓고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많음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해운재건을 더욱 가속화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해운산업을 개편하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 해운과 항만분야의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문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국내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인사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8일, 15일, 22일자로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 (4/3) △장관실 비서실장 정도현 (前) 유통정책과장
- (4/8) △해양개발과장 유은원 (前)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 △유통정책과장 황준성 (前)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 △어촌양식정책과장 서정호 (前) 해양수산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 나송진 (前)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정재훈 (前) 운영지원과
- (4/1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정진일 (前) 감찰팀장
- (4/22) △미래전략팀장 이재선 (前) 연안계획과
-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김인경 (前) 해양수산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장 윤두한 (前) 해양수산부
-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파견 안치국 (前) 양식산업과
- △국무조정실 파견 노재욱 (前) 미래전략팀장

KP&I, 제4대 회장에 박영안 태영상선 사장 선임



4월 9일 열린 Korea P&I Club 제78차 이사회에서 박영안 이사(태영상선 사장)가 Korea P&I Club의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박영안 회장은 이윤재 회장(흥아해운), 이경재 회장(창명해운), 박정석 회장(고려해운)에 이어 Korea P&I Club의 네 번째 회장을 맡게 되었다. 신임 박영안 회장은 선임 직후 인사말을 통해 Korea P&I Club이 IG Class Club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을 위해 중점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먼저, 이사회를 비롯한 한국 선사들이 KP&I를 '우리 클럽, 내 식구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를 위해 현 이사들에게 Club 운영에 많이 동참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Club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이사들과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KP&I에 가입하면 이런 것들이 좋구나' 하는 고객가치 창출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방면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정관, 사업방법서 등 사업과 조직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경영 컨설팅을 통해, 어떠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기반을 갖춰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사회 직후 열린 취임식에서도 전 임직원을 향해 "KP&I는 우리클럽이며, 멤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안 회장은 1999년 KP&I의 설립발기인으로 참가한 이래 현재까지 19년간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유선박 전체를 KP&I에 가입하고 있고, 거액을 KP&I 출연하는 등 KP&I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박영안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1년 3월까지이다.

해양대 송화철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송화철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행사에서 초고층건물 첨단 구조기술의 자립화를 도모하고 구조물 안전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송 교수는 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문위원으로 다양한 대외봉사 활동을 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제도개선 방향 설정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부지침 및 대가기준 제정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양환경공단 상임이사에
김희갑 경영관리본부장**

해양환경공단은 4월 29일자로 상임이사에 김희갑 경영관리본부장을 신규임용했다.

△경영관리본부장 김희갑(金喜甲)

위동항운, 김형진 부사장 승진발령

위동항운유한공사는 기존 경영지원실장인 김형진 상무를 신임 부사장에, 박장규 이사를 물류사업본부 본부장에 각각 승진 발령하였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취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제8대 사장으로 구본환(59)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취임했다.

구 사장은 4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인천공항이 기존 틀을 뛰어넘는 '초(超) 공항시대'를 선도하고 격이 다른 공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구 사장은 "2023년까지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할 것"이라며 "세계 우수 공항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지낸 구 사장은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항공정책의 이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공항산업 전문가다. 28년 동안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진출과 항공회담을 통한 노선 확대, 운수권 제도 개편, 드론산업 등 항공산업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항공산업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

